

보도자료

2010년 7월 13일(화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정보보호팀 박철순 팀장(☎750-2750)
네트워크정보보호팀 구교영 사무관(☎750-2755) eaglefree@kcc.go.kr

사이버위기 경보 해제 [관심→정상]

정부는 '10.7.13.(화) 10:00를 기해, 지난 5월 23일 이후 유지되어 온 사이버 위기경보('관심' 단계)를 해제한다고 밝혔다. 사이버위기 '관심' 경보는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, 6.2. 지방선거 실시, 7.7. DDoS 공격 후 1년 등 국가적 현안이 대두된 상황에서 사이버공격 발생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대비 차원에서 지난 5월 23일 발령되었다.

정부는 사이버위기 경보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이버위협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, DDoS 공격 등의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민·관 공동 대응협력 체계를 경보발령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당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정부 관계자는 향후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, PC가 자기도 모르게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DDoS 공격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이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코드 점검 및 최신 보안패치 설치 등의 보안을 생활화해야 함을 당부하였다. 끝.